

은행

Sector Issue Brief

2026. 08. 18

7월 여수신동향: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성장격차 확대 예상

Check Point

- 7월 기업대출 증가 폭 확대
-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온도차 확대 예상
- 수신구조상 조달비용 상승국면 지속

| Analyst 전배승 | bsjun@ls-sec.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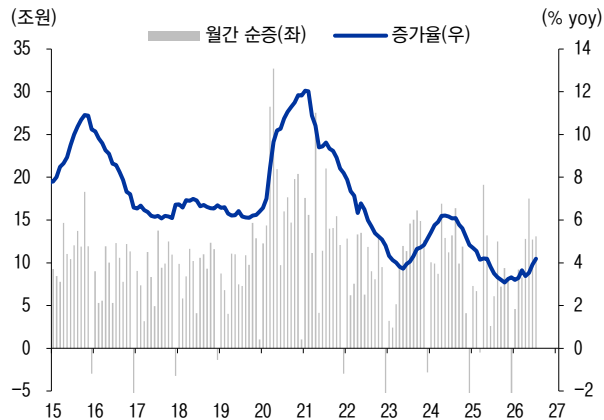
7월 기업대출 증가 폭 확대. 가계대출은 주춤

- ▶ 7월 예금은행 총대출(정책대출 포함)은 2,616조원으로 6월 대비 13.1조원(0.5%) 증가했으며, 전년동기대비로는 4.2% 증가. 이는 4~6월 월평균 대출증가율은 0.6%와 유사한 수준이며, 상반기(1~6월) 전체 월평균 0.4%와도 크게 차이가 없음. 참고로 1~7월 누적 은행권 총대출은 3.1% 증가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2.2%에 비해 증가 폭이 확대됨
- ▶ 이는 지난해 대비 기업대출 증가율이 높게 유지된 결과. 연초 이후 7월 누적 기업대출은 4.2% 증가해 25년의 2.4%에 비해 크게 확대됨. 7월에도 은행권의 생산적금융 확대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월(6월) 분기말 일시상환분 재취급에 따라 기업대출은 7.7조원 증가(+0.5%)
- ▶ 반면 가계대출의 경우 7월 순증규모는 5.4조원으로 5월의 6.9조원, 6월의 7.6조원에 비해 축소됨. 전세를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감소하고 7월 증시부진에 따른 신용대출 수요감소로 증가 폭이 둔화됨
- ▶ 수신동향을 보면 7월 들어 은행권 총수신이 30조원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특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의 감소 폭이 -52조원으로 크게 나타남. 이는 전월 분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예치된 기업자금의 재유출되고, 주식시장 조정에 따른 개인 투자자금 유입의 결과. 반면 정기예금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과 은행권의 유지강화로 큰 폭으로 증가. 그 결과 조달비용이 낮은 결제성예금 증가율은 크게 둔화되고 있고 정기예금 증가율은 완만하게 상승 중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성장을 격차 지속 확대 예상. 수신구조상 조달비용 상승 국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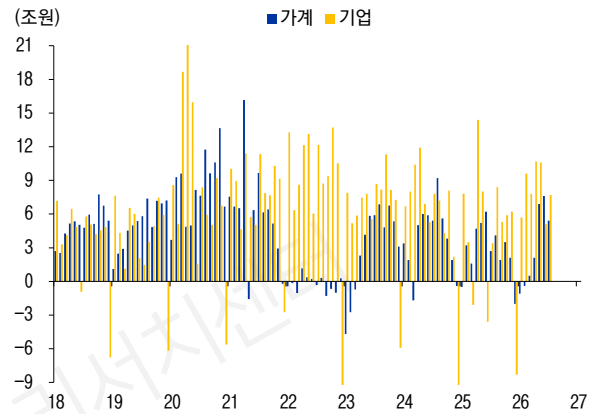
- ▶ 보유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택거래 추가감소가 예상되고, 증시 변동성 확대와 레버리지 상품규제로 인해 가계 주담대와 신용대출 모두 둔화흐름이 예상됨. 가계대출 규제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별 한도 또한 상당부분 소진되고 있어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율 둔화는 뚜렷하게 나타날 전망
- ▶ 반면 기업대출의 경우 생산적금융 추진과 정부의 추가적인 메가 프로젝트 발표, 회사채 금리상승 대비 은행간 경쟁으로 인한 기업대출 금리 상승 폭 둔화 감안시 하반기에도 높은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 가계대출과의 성장률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
- ▶ 수신측면에서는 금리인상과 함께 조달비용이 높은 정기예금 중심으로 총수신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결제성예금의 증가율은 눈에 띄게 둔화되는 모습. 주식시장으로 이동했던 개인자금의 복귀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인데, 최근 단일종목 ETF 규제강화로 증권사 고객예탁금 규모가 100조원 수준까지 낮아지며 8월 이후 은행수신 확대에 일부 긍정적 영향이 예상됨. 그럼에도 금리 인상 국면에서 저원가성수신 증가율 둔화는 불가피해 보여 조달비용 상승국면 지속 예상

그림1 은행권 총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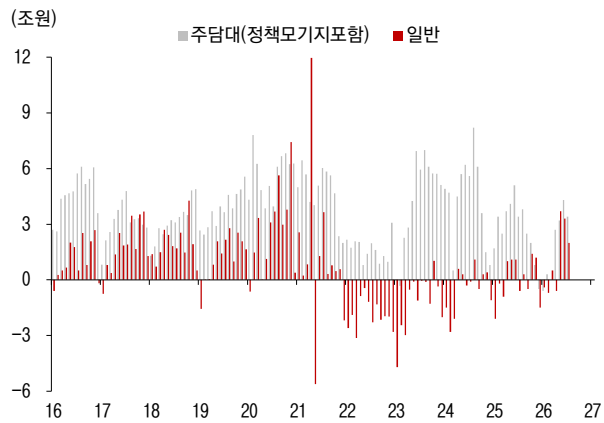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월간 순증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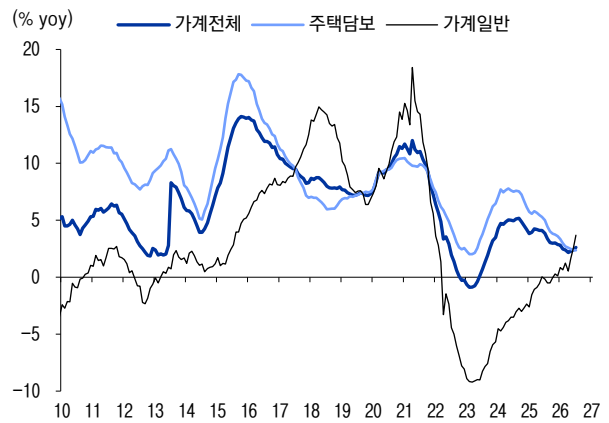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가계대출 부문별 순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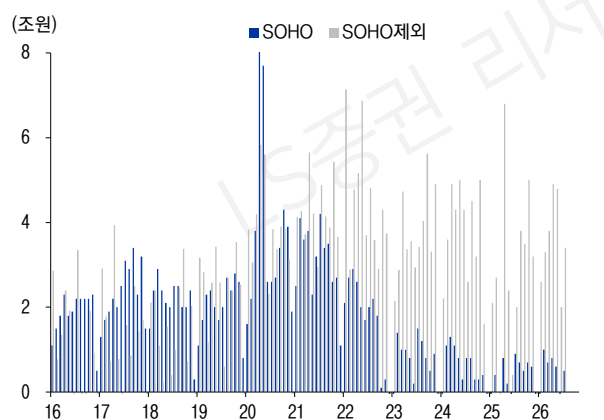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가계대출 부문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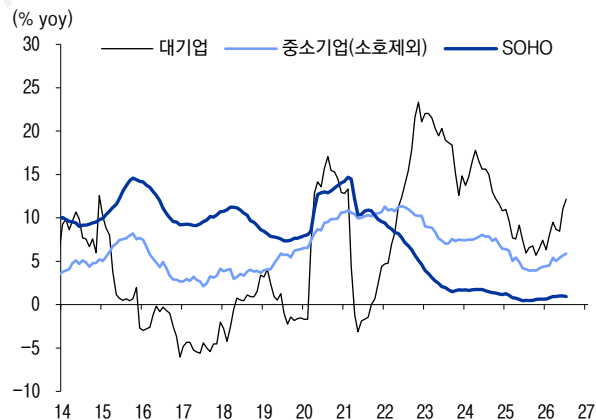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기업대출 부문별 순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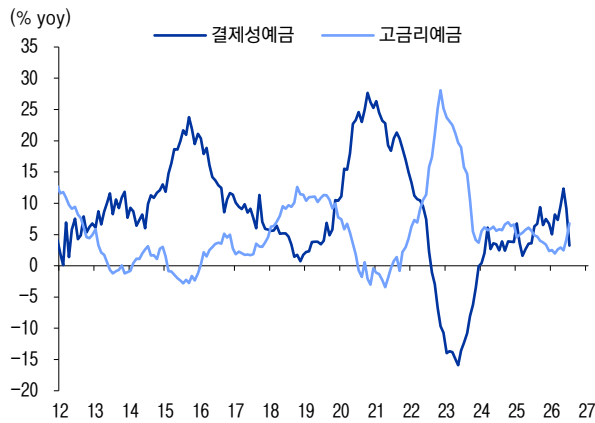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기업대출 부문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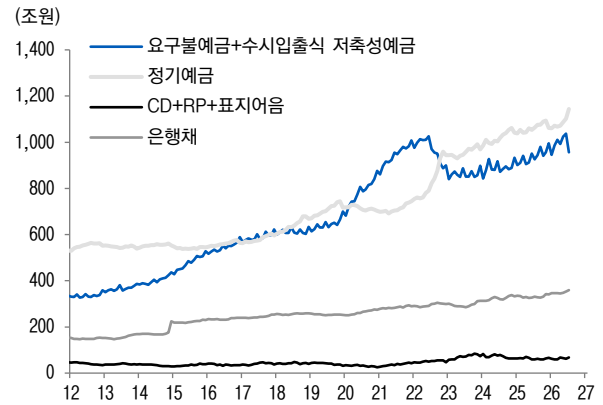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은행권 부문별 수신 증가율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은행권 부문별 수신 추이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증권사 고객 예탁금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증권사 신용잔고 추이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전배승).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15% 이상 기대 -15% ~ +15% -15% 이하 기대	90.3% 9.7%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준 $\pm 15\%$ 로 변경
		합계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25. 07. 01 ~ 2026. 06. 30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